

여성 '문제해결자'형 인물의 활약과 <임화정연>의 윤리

— 화빙아 · 여희주 · 석가월을 중심으로 —*

김지연**

<차 례>

1. 들어가며
2. 화빙아의 기묘비계(奇謀秘計)와 기담(奇談)의 후광
3. 여희주의 설득·호소와 지지(支持)의 수렴
4. 석가월의 속임수와 의지(意志)의 관철
5. <임화정연>의 윤리
6. 나가며

<국문초록>

<임화정연>은 여성들의 주도 혹은 주선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양상이 곡진하게 그려진다는 점에서, 남성의 권위에 의존하여 일방적인 방식으로 문제를 봉합하는 다수의 작품과 변별된다. 이에 본고에서는 <임화정연>의 세 여성의 사례를 중심으로 여성 문제해결자형 인물의 서사적 의미를 분석하고 작품의 윤리를 궁구하였다.

화빙아는 기묘하고 적절한 '피'를 써서 문제를 해결한다. 그의 피는 위기를 소거하는 지략이자 자신을 괴롭힌 악인을 회과/성장시키는 교육으로써 기능했으며, 화씨는 '奇謀秘計'의 후광을 얻음으로써 순조롭게 임부에 안착할 수 있었다. 여희주는 친정의 자궁 갈등을 해결하고 이복자매 여미주를 정부에 수용하기 위해 고군분투한다. 소부인의 흠단을 감추려 애쓰고, 미주를 거부하는 남편 정연경을 설득하는 한편, 미주를 끊임없이 훈계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이로써 시택과 친정의 전폭적인 지지와 신뢰가 여희주에게로 수렴된다. 석가월은 '속임수'를 통해 타인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당면한 문제도 함께 해결한다는 특징을

* 이 논문은 2017학년도 세명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해 수행된 연구임.

** 세명대학교 미디어문화학부 조교수

보이는데, 문제 해결자로서의 공덕과 명성을 통해 마침내 출가의 꿈을 관철할 수 있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성들의 주도적인 활약과 그 과정에서 확산된 공감은 연대(連帶)로 이어진다. ‘동지적 자매애’라 부를 수 있는 이 연대의식은 <임화정연>의 근간을 이루는 정서이자 윤리로 기능하였다.

□ <임화정연>, 여성 문제해결자, 기모비계(奇謀秘計), 호소와 설득, 속임수, 동지적 자매애, 작품의 윤리

1. 들어가며

국문 장편소설은 주로 여성들의 고난 및 수난을 다루면서 갈등을 작품의 전면에 배치한다.¹⁾ <소현성록>의 화씨가 겪은 남편과의 불화, 석씨가 받은 이유없는 냉대를 비롯하여 <쌍천기봉>의 진씨, 유씨, 정씨로 이어지는 며느리 3대의 수난 등을 떠올려 볼 때 국문 장편소설이 여성의 고난에 주목한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모든 국문 장편소설에서 여성이 수난을 ‘당히는’ 인물로만 그려지는 것은 아니다.

<임화정연>은 여성들이 겪은 고난과 영욕(榮辱)의 파란만장한 사연을 긴 서사로 담아내는 작품이다. 국문 장편소설에서는 그러한 사연이 여성의 고난과 남성(가문, 강자)의 해결이라는 구도 속에서 그려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수난을 겪는 주체는 여성이지만, 그 수난이 발생하거나 해결되는 동인(動因)은 남성 인물로 그려지는 것이다.²⁾

1) 장시광, 「『쌍천기봉』 여성수난담의 특징과 그 의미」,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21,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10, 187~232쪽. ; 장시광, 「대하소설 여성수난담의 성격 : <완월회맹연>을 중심으로」, 『동양고전연구』 47, 동양고전학회, 2012, 7~50쪽. ; 이지하, 「18세기 대하소설의 멜로드라마적 성격과 소설사적 의미」, 『국제어문』 66, 국제어문학회, 2015, 203~212쪽.

<임화정연>에 그려지는 여성들의 수난 역시 남성에 의해 야기되거나 해결되는 경우가 많지만, 조금 다른 양상도 포착된다. 여성 스스로가 문제의 원인이 되는 경우는 물론, 여성의 주도로 고난이나 갈등, 문제가 해결되는 양상이 전면으로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여성 인물이 문제해결자로서 부상한다는 것은 다른 국문 장편소설과 구별되는 지점일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작품의 지향과 맞물려 있는 부분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사실 <임화정연>은 표면적으로는 남주인공 임규의 훌륭함을 끊임없이 칭찬하며 모든 인물과 사건에 대한 절대적 영향력을 강조하는 작품이다. 그러나 서사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임규는 다만 중심에 위치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사건이나 갈등으로부터 한 발짝 떨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서사가 수렴되는 중심축은 임규에서 정연경으로, 1세대 아버지들에게서 2세대 아들들에게로 시종일관 남성들이 전유하고 있지만, 실제적인 서사를 생성하고 추동하는 힘은 여성 인물들에게 있다. <임화정연>의 서사를 실질적으로 구성하고 이끌어가는 주역을 여성 인물로 봐도 무방한 이유이다.

<임화정연>에는 자극적인 사건들이 균배되어 있다. 이는 여성 인물들

-
- 2) 그 대표적인 예로 동복(同腹) 자매 사이의 갈등을 다룬 <명주기봉>을 들 수 있다. 사마예주와 영주 자매는 오랫동안 온갖 수난을 당하며 극심한 심적 고통을 겪는다. 그러나 이러한 자매 갈등이 본격적으로 점화된 이유는 부친의 편애로 인한 역혼(逆婚) 때문이며, 십 여년 후 갈등이 수습될 수 있었던 것도 시가(孀家)의 외척 장시중의 관여 덕분이었다. 장시중은 동복자매의 남편 현웅린의 당숙(堂叔)으로, 오래 전에 웅린이 예주와 동침하고자 훗날 영주의 복귀를 약속하는 것을 엿듣고 적어두었으며, 화기에애한 분위기 속에서 이 종이를 꺼냄으로써 화해와 포용을 종용하는 것이다. 여성들 사이의 갈등조차도 그 유발과 해결의 동인이 남성들에게 있음을 알 수 있다. (최수현, 『<명주기봉>에 나타난 자매갈등의 형상과 그 의미』, 『어문연구』 42(1),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14, 216~227쪽.)

이 겪는 일 가운데 극단적이고 심각한 성격을 띠는 것이 많을 것이며, 따라서 순조로운 해결이나 자연스러운 해소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임을 암시한다. 이러한 일들에 대해 남성 인물들은 기존의 윤리를 틀어대거나 감정적인 판단에 의거하여 즉결하고자 한다.³⁾ 그러나 이러한 자극적인 일들이 가문 내에서 수용되거나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떤 방식으로든 그 사건이 ‘해결’될 필요가 있다. <임화정연>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이 여성들의 주도 혹은 주선으로 ‘해결’되는 과정이 주요하게 취급된다.⁴⁾

<임화정연>에서 갈등을 유발하는 사람은 남녀 구분이 없지만, 그렇게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는 여성으로 그려지는 경우가 많다.⁵⁾ 본고

-
- 3) 딸 여미주의 음행에 대한 부친 여익의 반응이나, 세 번째 처로 들인 송씨가 알고 보니 여미주였음을 알게 된 남편 정연경의 반응이 대표적이다.
- 4) 국문 장편소설에서 문제해결자형 여성 인물을 다룰 때 <유씨삼대록>의 진양공주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진양공주는 전지전능에 가까운 자질과 요조숙녀의 품성, 빼어난 미모를 갖추었을 뿐 아니라 친정인 황가(皇家)와 시부인 유부의 전폭적인 신뢰를 받고 있다. 문제의 해결을 위해 누구와도 교섭할 수 있는 신분과 위상, 재주에 더해, 현재는 물론 미래의 환란에도 대비할 수 있는 예지력까지 보유하고 있었던 진양공주는 보통 사람의 수준을 넘어선다는 점에서 현실적이기도 보편적이기도 인간적이기도 않다. 이런 이유로 본고에서는 진양공주 같은 인물을 ‘문제해결자’형 여성 인물로 분류하지 않는다. 진양공주의 문제 해결 방식은 남성 인물들이 주로 행하는 일방적인 봉합이나 전지전능한 처리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진양공주에게 헌정되는 숭배에 가까운 존중이나 확고한 지지 역시 그의 문제 해결이 직접적이고 일방적이며 갑작스럽게 행해질 수 있는 조건이 된다. 국문 장편소설 속 많은 며느리나 딸이 (시)부모의 지지와 사랑을 받는 것으로 그려지지만, 진양공주의 경우는 그 수준이 숭배와 찬양, 절대적 신뢰의 수준으로 격상된다. 따라서 진양공주가 인지하거나 지시하거나 개입하(는 것을 알리)는 것만으로도 대부분의 문제가 해결된다. 즉 ‘진양공주’의 존재 자체가 문제 해결의 수단 혹은 근거가 되는 것이다. 이것은 기존의 남성 인물의 문제 해결 방식과 다를 바 없다. 본고의 관심은 문제적인 상황이 인물들의 고민이나 노력, 시도, 관계 변화 등을 통해 해결되어 가는 양상에 있다. 그 중에서도 여성이 주도하는 (결코 수월하지만은 않았던) 문제 해결 과정에 특히 주목했다. 초월적 능력을 갖추었거나 절대적인 위상을 가진 여성 인물은 남성의 경우처럼 문제 해결의 방안을 태생적으로 갖고 있다. 그러한 인물의 등장만으로 이미 문제 해결은 시작된다고 볼 수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인물을 문제‘해결자’로 보지 않는다.

는 이러한 여성 '해결사'들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법과 그 서사적 맥락에 착목하여 작품의 세계관을 재조명함으로써, 인물 형상과 작품의 지향의 유기적 연관성을 확인하고 소설사적 의의를 밝히고자 한다.⁶⁾

2. 화빙아의 기묘비계(奇謀秘計)와 기담(奇談)의 후광

화빙아는 상서 화경운과 주부인의 딸로, 어린 남동생이 둘 있다. 부친이 간신 호유용의 농단으로 유배중일 때, 가흥현의 지현 이태경이 자신의 아들 이창백과의 혼인을 강요하자 거짓으로 정혼한 척 하며 거절한다. 그러나 이 지현 부자가 계속 의심하며 계속 청혼해 오자 화빙아와 모친 주씨는 대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고심한다. 이 때 마침 유숙을 청한 정운이 부친 화상서 친우인 정현의 아들임을 알고, 모친 주씨의 주선으로 정혼한다.⁷⁾

그러나 화빙아의 문제 상황은 끝나지 않는다. 정운과의 약혼으로 이창백의 억혼 위험에서 벗어날 것을 기대했으나, 오히려 문제는 종결되지 않고 심화된다.

5) 흥미로운 것은 그러한 여성들의 활약 뒤에서 남성인물들의 성장이 그려진다는 점이다. 임규는 결핍을 채워가고 진상문은 콤플렉스를 치료하며 정연경은 자신의 위상에 맞는 지혜와 판단력을 갖춘 어른으로 성숙해간다. 작품 전반에 걸쳐, 그들의 성장이 긴 서사 속에서 형상화되는 것이다. (김지연, 『<임화정연>의 서사 전략 연구』,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2009, 67~87쪽, 181쪽.)

6) <임화정연>에 관한 선행 연구 정리는 김동욱, 『<임화정연>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016, 6~12쪽 참고.

7) 사실 정운은 정운희가 남장한 채 도로유리하면서 가상으로 내세운 존재였는데, 화빙아 모녀는 그가 여자임을 전혀 눈치 채지 못했다. 정운희는 화경운의 명성과 화빙아의 숙덕을 믿고 임규가 준 옥인을 화빙아에게 주어 정혼한다. 이로써 화빙아는 임규와의 직접적인 인연이나 집안끼리의 혼담 없이 임규와 정혼하게 되는 것이다.

1) 이창백의 억혼 위협과 포용적 해결

화빙이는 자신에게 닥친 억혼(抑婚) 및 실절(失節)의 위기를 스스로의 ‘꾀’로 해결한다. 이창백, 진상문, 장현이라는 무뢰배에게 세 번에 걸쳐 억지 혼인 강요와 위협을 당하지만,⁸⁾ 상대의 의중이나 모의를 간파하여 사전에 슬기롭게 대처함으로써 납치와 실절의 위기를 모면했다.⁹⁾

화빙이는 지략(智略)으로써 가족과 자신을 지키고, 또 다른 꾀를 써서 자신의 명예를 회복했다. 그 과정에서 자신의 일과 관련하여 억울하게 옥살이하고 있는 인물을 신원하는 한편, 자신에게 가해진 불명예를 격파하

8) 세 사람의 위협으로 야기된 위기/문제 해결 과정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이창백(어사 고윤이 중매인으로 왔으나 화원을 사위로 삼고 싶은 마음에 강요하지 않고 돌아감, 송파도 매파로 왔다가 거절당함.. 짚으로 인형 만들어 정공자인 척 속임. 홍영으로 대리혼인), ②진상문(복통으로 급사했다는 소문을 내서 단념시킴. 동생과 모친, 유모 연파와 시비 취선과 공모하여 집안의 다른 시종과 마을 사람들 모두에게 화소저가 죽었다고 소문을 냄. 지부 마공조차 화소저가 죽은 것으로 알고 진상문에게 죽었음을 확인시켜 줌.), ③장현(이삼랑-이거인이 매파로 옴. 시비 취정으로 대리혼인, 취정의 내조로 장현은 일년 만에 학자가 됨, 취정이 언관인 시부 장급사를 쫓아 화경윤의 해배를 약속받기도 함)

9) 쇼계 쫓은 모친의 심수를 슛치미 소회 일반이라. 불승비분하여 하나 천만인지하고 모친을 빅단관위하여 왈, “스세 여츠지도의 대화를 급히 피호미 올호니 엇디 안즈셔 환을 당호리오.” 부인 왈, “여모는 정신이 모황호니 능히 도흔 모칙을 썬듯디 못호니, 너의 소견을 듯고져 호노라.” 쇼계 이에 원인(遠人) 벽좌우(辟左右)하고 그마니 고왈, “니가 특심이 오날 밤의 오디 아니면 백〃이 명일야는 히계호리니, 여츠〃호여 흥인의 답이 서늘호게 호면 속으로 비록 한호나 다시 암샤호 독슈를 아닐 호호디, 썬 반드시 흥협호 꾀를 브리고 위세를 빙즈호여 쇼녀를 히호 거시니, 그썬 히인 별단 거죄이셔 절노 거브러 칭형호리니 모친은 번뇌치 마르쇼셔. 슈연이나 이러툃 어저러운 ㄱ운디 낭데의 신상이 두리오니 태〃는 밧비 근신호 가인으로 낭데를 보호호여 외간의 피호게 호시고, 태〃는 모든 노복을 엄히 신칙호샤 뇌외의 디후호라 호시고 침당의 곱히 쳐호쇼셔. 히오는 유모와 취정으로 더브러 즈연 화를 피호여 나리이다.” 부인이 석연돈오호여 이에 튡근호 가인 년통(년파의 당뵈) 년괴(쇼년파의 당뵈) 형데를 불너 츠스를 니르고 공즈를 다려 안명호 곳의 가 보호호라 호고, ㄱ즈를 경계호여 두 가정을 조츠 조심호여 숨어시라 호니, (중략) 공즈를 업고 외간의 가 슈밀이 숨으니라. <권지8, 35~37쪽>

고자 했다. 이를 위해 화빙이는 어쩔 수 없이 자신의 모습을 찰원(察院)이라는 공적인 공간에 드러내야 했다. 이지현이 결코 죄를 인정하지 않을 것을 예상한 어사 연권과의 '콜라보'였다. 화빙이는 마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창백 부자의 악행과 자신이 받은 위협, 그에 대한 자신의 대응의 과정을 '직접' 진술한다. 이 때 연권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 심지어 화빙이에 의해 죄상이 지적되고 있는 이창백까지 그의 미모와 지혜에 감탄하게 된다.

화빙이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피'였다. 슬기롭게 위기를 벗어나는 수단이자, 주도면밀하게 주변을 정리하는 태도라는 점에서 화빙이의 '피'는 그의 빼어난 자질이자 품격의 하나로 수렴된다. 지현 이태경과 그의 처 경씨는 자신들을 용서해 준 화빙이의 '은혜'를 거듭 칭송하였으며, 이창백과 이미 정이 든 홍영을 정식으로 이부로 보내주었을 때는 감격해 마지않았다. 화빙이의 피는 지혜이자 슬기이며, 포용이자 용서의 다른 이름이라 할 수 있다.¹⁰⁾

화소저는 문제 해결 과정에서 투입된 홍영을 정식으로 이창백에게 시집보냄으로써 자신이 당한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한 대책 마련과 실행의 전 과정(위기 해소 및 악인 징치)을 마무리한다. 이제 이와 관련하여 원한이나 미련을 가진 사람도 없고 피해를 본 사람도 없다.¹¹⁾ 화

10) 화빙이가 총명하고 지혜로운 인물임은 다른 여러 상황에서도 드러난다. 남장한 정운희(정운)가 혼약의 증거로 보낸 시를 보고 혼자 조용히 미소를 짓는데, 모친이나 남동생들과는 달리 그는 이미 정운이 여성임을 간파한 것이었다. 또 자기를 대신해서 이창백에게 납치된 시비 홍영이, 모두가 이창백을 똥공자라 놀리며 비웃을 때 혼자 웃지 않고 있는 것을 알아 본 사람도, 그런 홍영을 이창백에게 정식으로 시집보내면서 남편을 가르치고 잘 단속하라고 당부한 사람도 화소저였다.

11) 화빙이는 피를 써서 악인들을 당황시키거나 자신들의 행계가 통했다고 믿게 만들어, 위협을 피할 시간을 확보할 뿐, 상대에게 위해(危害)를 끼치거나 복수를 하지는 않는다. 석가월의 속입수가 복수나 징벌의 의도에서 고안된 것이었다는 점과 비교할

해와 용서, 이해와 반성으로 이제 모두가 평안한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이다. 송파는 억울한 옥살이를 끝낼 수 있었고, 감옥에 갇힌 속도 걱정에 노심초사하던 조카도 안도하였다. 교활했던 가흥현의 지현 이태경은 파면되었고, 분수도 모르고 욕심을 부렸던 그의 아들 이창백은 곤장을 맞았을 뿐 아니라 ‘똥도령’이라는 별명을 얻으며 망신을 당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쳤고, 자신을 용서해 준 화빙아에게 진심으로 감사했다. 심지어 화소저는 이창백과 홍영 사이에 싹튼 애정을 감지하고 그것을 이어갈 수 있도록 홍영을 정식으로 이부로 시집보낸다. 홍영의 내조에 힘입어 이창백이 그 전과는 다른 사람으로 변화했다는 짙막한 서술에서 화빙아의 혜안을 엿볼 수 있다.

2) 기모비계의 명성과 숙녀 자질의 공인

화빙아는 슬기롭게 상황을 판단하고 적절하게 피를 써서 위험에서 벗어난다. 그의 당당한 태도와 지혜로운 판단, 기묘한 행계는 ‘기모비계(奇謀秘計)’로 칭송되며 고통과 누명을 단번에 소거한다. 그런데 화빙아의 ‘피’가 가져온 효과는 이 뿐만이 아니다. 이창백의 납치 기도 사건의 전모와 화소저의 완벽한 선제 대응은 때마침 어사직을 수행하던 연권에게 전달되고 공유되었다.

사실, 연권이 없었더라면 화빙아가 겪었던 위험과 불편은 스스로가 진

때 확연히 구별되는 특징이다. 물론 위후진이나 이창백 등은 훗날 죄상이 드러나 순무어사 연권에게 형벌을 받게 되지만, 그들이 저지른 납치, 강간(미수), 명예훼손 등 분명한 범죄 혹은 가해 행위에 대한 ‘공적’인 처벌일 뿐, 피해자 화빙아의 ‘사적’인 복수는 아니다. 한편, 화빙아는 자신의 위험을 피하는 데에만 골몰하지도 않는다. 위험을 피해 가족을 대피시키고 상대를 교란시키기 위한 지략을 쓰되, 자신에게 가해진 납치 위협과 자신의 대응 방식을 스스로 밝힘으로써 사건의 전모를 정확하게 알리는 데에도 지혜를 발휘한다.

술하는 고생담 정도로 훗날의 시부모나 남편 및 동렬들에게 전달되었을 것이다. 화빙아에게는 정운희의 시비 석가월 같은 말재주가 좋고 의협심이 넘치는 시비가 없으며, 사는 곳도 소흥부와는 좀 떨어진 가흥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연권의 순무와 화소저의 신원의 시기가 맞물린다는 것은 화빙아의 뛰어난 자질과 험악한 고난이 공식적인 '인증'을 통해 '스토리텔링' 될 수 있는 계기를 얻었음을 의미한다.

실제로 연어사는 자신의 딸 연영아와 양녀[義女] 정운희 말고도 화빙아라는 '희한한' 여성이 있음을 보면서 감탄한다. 또 그는 화빙아의 '기모비계'와 절의를 기리기 위해 국가적 포장을 요청하기도 했다. 화빙아의 피가 정절을 지키고 마을의 안녕을 회복하는 선을 넘어, 공식적으로 표창되고 공개적으로 칭송되는 경지에 오른 것이다. 이것은 그간의 마음 고생과 심리적 위협에 대한 보상을 넘어, 보다 안정적으로 임부에 안착할 수 있는 명분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화빙아는 자기 피의 후광을 입었다고 볼 수 있다.

화빙아는 남장한 정운희와의 정혼을 계기삼아 임규와 혼인하게 되었지만, 화소저와 임규 사이에는 특별한 인연도 직접적인 혼담도 없었다. 이창백의 반복되는 청혼을 피해야 하는 상황이었기에 가장이 부재한 상황에서 주부인은 딸의 혼사를 적극적으로 추진했고, 지인지감이 있었던 정운희였기에 자신이 임규에게 받은 옥인을 기꺼이 내어주며 화부의 청혼을 수락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혼(定婚)이 순편하면서도 잡음 없이 혼사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일정한 '조건'이 필요했을 것이다. 정운(희)과 화빙아 사이의 불완전한 혼약을 임규와 화빙아의 온전한 혼인으로 공인할 수 있는 강력한 '확신(인연)'과 철저한 '검증(자격)'이 바로 그것이다.

물론 화빙아는 본인이 난자혜질(蘭姿蕙質)을 갖춘 아름다운 숙녀이며 부친 화경윤이 의로운 선비라는 점에서, 임규의 처가 되기에 부족함이 없

다. 그러나 화빙이는 이창백의 억혼과 납치라는 위기에 적절하게 선제 대응함으로써, 정확하게 상황을 파악하여 완벽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 기묘비계(奇謀秘計)-이 있음을 보여주었을 뿐 아니라, 사후 대처를 통해 슬기로운과 당당함, 관대함을 갖춘 여성임을 스스로 증명했다. 중요한 것은 기발하면서도 절묘하게 악인을 절제함으로써 ‘기묘비계’라는 미명(美名)을 얻게 된 전 과정이 어사 연권을 의해 수집되고 목도되었다는 점이다.

이제 화빙이는 기묘비계를 가진 독보적인 숙녀로 부상한다. 가흥 주민들의 칭송과 순무어사 연권의 탄복을 통해 화빙아의 ‘피’는 공개적으로 인정받고 공식적으로 표창된다. 공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남성 관료의 눈에 포착된 화빙이라는 인물의 총명함과 주도면밀함, 당당함과 관대함은 그 자체로 하나의 ‘기담(奇談)’이 되어 소흥부의 정부와 경사의 입부에게까지 전파된다. 이로써 화빙이는 임규의 처가 될 수 있는, 아니 될 수밖에 없는 기이한 인연과 절묘한 능력을 갖춘 여성임이 확인된다. 자신이 만든 기담의 후광 덕분이다.

3) 진상문과 장현의 탐욕과 단호한 사전 차단

그러나 화빙이의 곤경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임화정연> 전반부 최고의 악당인 진상문이 그의 명성을 듣고 아내로 취할 악심을 품었기 때문이다. 불과 얼마 전, 연부에 청혼했으나 거절당한 그는 연권을 포함하여 절강 순무어사로 보낸 후 그의 부재를 틈타 연소저의 이복 외숙인 시중 유일를 압박하여 연영아와 혼인을 강행할 작정이었다. 그러나 결국 얻은 것은 자신을 연소저라 속인 유일의 딸 유취향이었다. 이에 더욱 분노한 진상문은 연권의 판결과 처리에 문제가 있다는 트집을 잡기 위해 호유용

의 추천을 받아 절강 별순검이 되어 가흥현으로 내려오는 길이었다. 화소저의 미모에 대한 소문을 들은 그는 다시 색욕이 발동하여 음험한 목표를 세우게 된다.

앞서 진상문은 표매 정운희와 연권의 딸 연영아를 아내로 삼고자 골몰했던 시절이 있었으나 모두 실패했다. 흥미로운 것은 진상문은 훗날 임규의 3처가 되는 정운희와 연영아, 화빙아 모두에 흑심을 품었으나 하나도 얻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정운희와 연영아가 진상문의 억혼을 물리치는 과정에서는 석가월이 주도적으로 계획을 세워 행동을 지시한 데 반해, 화빙아는 석가월의 조언을 물리치고 스스로의 판단과 행계로 대처한다. 석가월은 기주 주어사(화빙아의 외삼촌, 정운희의 고모부)를 찾아갈 것을 권했지만, 화빙아는 폐 끼치는 것이 싫다며 자신이 복통을 앓다가 죽은 것으로 연기를 하겠다고 한다. 이창백 때 보다 더욱 치밀하고 철저하게 행계한 덕분에, 갑작스러운 사건이었음에도 주부인과 화공자 외에는 아무도 속임수임을 알지 못한다. 진상문 역시 허탈해하지만 관아에서까지 화빙아가 죽었음을 확인해 주니 어쩔 도리가 없어 단념한다. 이로써 화빙아는 다시 한 번 억혼의 위기를 기지(機智)로써 모면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화빙아가 외숙 주어사의 임소인 기주로 가야할지 망설이는 사이, 장급사의 아들 장현이 그가 아직 살아있음을 알게 되면서 다시 한번 위기가 조성된다. 장현은 이삼랑이 부추기는 대로 화빙아를 납치하여 혼인하려는 불의한 계획을 세우는데, 이러한 소문을 들은 송과가 재빨리 화소저에게 알려 주어 피화(避禍)할 수 있게 한다. 사실 송과는 자신이 이지현의 처 경씨 앞에서 화소저의 미모와 자질에 대한 수다를 늘어놓았던 것이 빌미가 되어 화빙아를 곤경에 빠트렸다는 사실에 깊은 죄책감을 느끼고 있었다. 그런 자신을 원망하기는커녕 오히려 자신의 억울함을 소명하여 방송될 수 있게 해 준 화빙아에게 은혜 갚을 길을 모색하던 중, 장

현 무리의 흥계를 감지하고 바로 전달하여 화소저가 곤란을 겪지 않고 기주로 떠날 수 있게 함으로써 그간의 미안함과 감사함을 보상하고자 했던 것이다. 화소저의 관대함과 주도면밀함은 타인을 감동시켰으며, 그것이 다시 위기에 빠질 뻔한 화소저를 구해주는 도움으로 되돌아온 것이다.

이번에도 화빙이는 시비로 자기를 대리하게 함으로써 위기에서 벗어나는데, 이 과정에서도 화빙이의 지혜와 지감(知鑑)이 드러난다. 장현은 이 창백 보다 여러 모로 나은 인물이었던 바, 화빙이는 (홍연에 비해) 미색은 떨어지나 성품이 곧고 현명한 시비 취정을 자신처럼 꾸며 자신의 가마에 대신 타게 했다. 화빙이의 가르침대로 취정은 내조를 잘하였으며, 화빙이의 지감대로 장현 역시 취정의 말을 좇아 회파하고 학문에 매진한다. 또 취정은 언관인 시부 장급사를 설득하여 화소저의 부친인 화경운이 빨리 해배될 수 있도록 건의하겠다는 약속도 받아낸다.

이상에서 화빙이의 문제 해결 양상을 살펴보았다. 화빙이의 문제 해결 범위는 공사(公私)를 넘나든다.¹²⁾ 자신의 피로써 자신과 가족의 안전을 도모하는 사적인 과정에서, 민원 해결과 관리의 포폄 등 공적인 범주로까지 확산된다. 그의 피는 한 치의 어긋남도 없었으며, 상황에 대한 정확한 예측과 치밀한 대비를 통해 상대의 계락을 무력화시킬 수 있었다. 철저한 방어로 2차 피해나 고생을 줄일 수 있었다는 것도 화빙이의 문제 해결 방안이 갖춘 미덕이다. 가해자들이 심리적 압박을 느껴 더 이상 소문 낼 수 없게 할 지략을 발휘한 덕분이다.

나아가 악인들에게도 저지른 잘못 이상의 피해를 주지는 않았다는 점

12) 그의 피는 자신의 안위를 지키고[私] 억울한 사람을 신원하고 마을의 평화를 회복 [公]했을 뿐 아니라 교활하고 탐욕스럽던 지방 관리 부자를 축출[公]시켰으며 심지어 그들이 자신의 악행을 반성하고 뉘우칠 수[私] 있게 하였다.

에서 '무해'하며, 오히려 악인의 반성과 회개를 유도하고 갱생의 기회를 제공했다고 볼 수도 있다는 점에서는 '유익'하기도 했다. 진상문은 조금 실망했을 뿐 깊이 관여하지 않았던 탓에 파장이 크지 않았고, 이창백과 장현은 오히려 홍영과 취정이라는 아내를 얻어 성장과 발전의 기회를 모색할 수도 있었으니 말이다. 이러한 점은 형벌로 징치받은 이창백 가족이 '화소저의 은혜'를 말하며 감동하는 장면에서 잘 드러난다.

화빙아의 꾀는 정확하게 적중하여 자신을 충분히 지킬 수 있었으며, 그가 베풀었던 관용과 용서는 다시 자신을 위기에서 구해주는 보상으로 돌아오기도 한다. 세 차례에 걸쳐 위협을 당했으나, 적절하게 대응했던 탓에 모두 일회성 위기로 끝날 수 있었다. 화빙아의 '꾀'는 자신을 지키는 지략이자 타인을 돌보는 지혜였으며, 궁극적으로 화빙아의 매력을 부각시키는 자질이자, 위상을 격상시키는 자격이 되었다. 기모비계(奇謀秘計)를 가진 화빙아의 기담은 이렇게 탄생한다.

3. 여희주의 설득·호소와 지지(支持)의 수렵

여희주라는 인물의 서사적 역할은 흥미롭다. 대부분의 고소설 속 인물들이 자신과 결부된 갈등을 겪으면서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려 애쓰는다는 점을 생각할 때, 다른 가족 구성원들 사이의 갈등을 중재하고 관계 회복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여희주의 입장과 태도는 남다른 면이 있다. 자신이 직접적으로 당면한 위협이나 문제가 아님에도, 끊임없이 사건에 개입하고 인물 사이를 조정하면서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점, 심지어 자신에게 애정을 갈구하는 남편에게 일부러 냉랭하게 구는 등 자신의 행복을 희생하면서까지 가족 간 갈등을 풀고자 하는 점 등은 문제해

결자로서 여희주의 성격과 기능을 잘 보여준다.

물론 여희주 또한 여미주의 음행으로 인해 남편에게 오해를 받아 갈등을 겪은 적이 있으며, 친정 식구들의 불화와 반목이 해결되지 않는 한 그의 삶도 평안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그가 개입하는 문제가 그 자신과 완전히 무관하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주변 인물들에게 처지와 처신을 이해받고 있다는 점에서, 그가 직접적인 갈등을 겪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성질이 급하고 과격한 부친 여익조차 희주에게는 관대했으며, 혼인 초기 남편 정연경과 불화하던 시절에도 시고모 정씨와 시숙모 설씨가 끊임 없이 정연경의 태도를 나무라며 희주의 편을 들어주었다는 점 등은¹³⁾ 여희주가 주변의 지지에 힘입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입지를 갖고 있음을 의미한다.

심지어 남편 정연경은 혼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희주에 대한 오해를 풀었다. 정연경과 여희주 부부는 상대의 진심을 알아주고 서로에게 잘하려고 한다는 점에서, 그들 사이에 존재하던 혼인 초의 갈등은 사실상 해소된 것이나 다름없었다. <유씨삼대록>의 유세필과 박씨, <현씨양옹쌍린기>의 현경문과 주씨, <소문록>의 소현과 윤씨가 서로의 뛰어난 자질을 알아보면서도 빈틈없는 완벽함이 꺼려진다고 하거나, 냉담함이 싫다거나 웬지 정이 가지 않는다고 하는 등 극복할 수 없는 이유들로 오래 불화하는 것과 비교한다면, 정연경과 여희주 사이의 긴장감과 어색함은 곧 해소될 성질의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정 식구들의 갈등과 반목을 수습하기 위해 여희

13) 사실 여희주가 친정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었던 데에는 시부모가 경사가 아닌 고향 절강에 머물고 있다는 점이 크게 작용했는데, 시부모 봉양 의무가 덜어지면서 윤신이 자유로워졌기 때문이다. 시부 정현은 영락제의 등극을 황위 찬탈이라 여겨 경사에 가지 않고, 아내 진씨와 첫째 며느리 위씨와 함께 고향 절강 소흥부에서 지내고 있다. 사후처인 여희주는 혼인 후 한참이 지나서야 시부모와 대면하게 된다.

주는 남편과의 화목 혹은 다정한 부부 관계를 전략적으로 유보한다. 대신 친정에 자주 드나들면서 본격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선다. 여희주가 해결해야 할 문제적 상황은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친정 식구들 간의 자궁 갈등 및 계후 갈등을 해결하고, 다른 하나는 정연경의 아이를 임신한 채 도주한 이복 여동생 여미주를 정부의 정식 일원으로 안착시키는 것이다. 전자는 여익의 장녀이자 총부 강씨 소생이라는 점에서, 후자는 정연경의 처이자 미주의 (이복) 언니라는 점에서, 각각의 문제를 해결해야 할 책임과 해결할 수 있는 권한(혹은 위치나 자격)이 여희주에게 부여된다.

그는 친정 내 갈등에는 직접 개입하여 인물 사이를 중재하거나 갈등의 과장을 적극적으로 단속한 반면, 여미주 수용 문제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남편에게 호소하고 강력하게 미주를 훈계하는 방식으로 대처했다. 여희주의 문제 해결은 문제 당사자를 직접 겨냥하든 관련자를 상대하든, 궁극적으로 설득과 호소, 훈계의 방식으로 수행된다. 진심을 담아 끊임없이 설득하려 애쓰고,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훈계하는 방법으로 여희주는 결국 악한 이복 오빠 여성옥을 회파시키고,¹⁴⁾ 고집 부리던 남편 정연경에게 미주를 처로 인정하겠다는 동의를 받아내었으며, 사이가 좋지 않았던 이복 자매 여미주를 감동시켜 변화시킨다.¹⁵⁾

14) 여성옥의 회파에는 계후 갈등을 겪은 여중옥의 기여가 컸다는 점에서 여희주의 호소만으로 여성옥이 회파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희주의 설득과 포용이 성옥의 마음을 움직인 것은 사실이다.

15) 사실 여희주가 문제해결자로서의 역할을 감심해야 할 운명임은 예언으로도 제시된 바 있다. 정연경이 희주를 미주로 오인하여 여부의 청혼을 거절하는 서사 뒤에, 여금오가 친구 장국구의 집으로 찾아온 환메로라는 도사로부터 자녀들의 앞날에 대한 예언을 듣게 되는 장면이 나온다. 도사는 첫째 여희주의 운명은 정씨 가문의 남자에게 달렸고, 둘째 여미주의 운명은 언니 희주에게 달렸는데 여미주가 부친의 명성에 덕질을 할 것이라고 예언했고, 이는 이후에 현실로 재현된다. 이 예언이 여희주에게 전달되거나 공유되지는 않지만, 여미주를 무사히 정부에 안착시키기 위해서는 결국 여희주가 상황을 정리하고 갈등을 조정하는 문제해결자 역할을 맡을 수밖에 없다는 사

1) 문제적 환경 : 불편한 상황과 안정적 관계

여희주는 경사 최고의 부자인 금오 여익의 장녀로, 모친 강씨는 현철하고, 남동생 중옥은 총명하다. 본인 자신이 완벽한 부귀와 재덕(才德)을 갖춘 숙녀임에도, 친정 내 불화와 불선(不善)한 이복 형제들로 인해 마음은 늘 불편하다. 부친의 삼부인 소씨 소생인 이복남매 성옥과 미주에게 끊임 없는 질시와 견제를 받고 있을 뿐 아니라, 소부인이 일으키는 크고 작은 분란 속에서 욕을 듣거나 매질을 당한 적도 있다. 부친이 사윗감으로 점찍어 몇 번이나 청혼한 끝에 황제의 위세를 빌려 겨우 정연경과 혼인하게 되었지만, 자신을 미주로 오인한 남편에게 한동안 냉대 받았다.

그러나 남편 정연경은 희주와 정식으로 대면하고는 바로 그의 숙덕(淑德)을 알아보며 예전에 연서(戀書)를 보낸 음란한 미주가 아닐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는 현명한 남자였고, 부친 여익은 비록 편협하고 고집불통이며 다혈질이지만 인물의 현우(賢愚)를 분간할 정도의 사리판단 능력은 갖춘 어른이었다. 시부 정현은 현명하고 시모 진씨는 다정했으며, 모친 강씨는 관대하고 동복 남매 여중옥은 철인군자(哲人君子)였다. 남편의 원비 위옥화는 빼어난 숙녀로 지음(知音)이자 친자매 같은 관계이다. 시고모 정씨 등 경사에서 함께 지냈던 시대 식구들의 애정과 배려도 각별하다. 가까운 주변 인물들이 모두 현명하고 반듯하며, 희주에 대한 신뢰가 크다.

실만큼은 독자들에게 충분히 환기되었을 것이다. 한편, 여희주가 여미주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은 결국 정연경과 여미주가 정식 부부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들 사이의 인연 역시 예언으로 암시된다. 진씨 부인이 여미주를 자신의 소고 송씨로 속여 구혼했을 때 정현은 정연경에게 이미 두 처가 있음을 들어 거절했지만, 얼마 후 진부를 찾아온 도사 황청암이 정연경이 3처²회를 둘 것이라 예언하자, 정현은 송소저(사실은 여미주)가 자신의 아들과 인연이 있는 인물이라 여겨 혼인을 승낙했다. 여부와 정부 사이의 두 번의 혼인이 모두 예언에 힘입어 간신히 성사되었다는 점은, 이복 자매와 한 남성의 혼인이 권장되는 양상이 아니었음을 의미하는 동시에, 정연경과 희주-미주 자매의 인연이 운명적임을 상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세 부인을 둔 부친이 빼어난 미모를 가진 셋째 소부인을 총애하였으나 시기심이 많고 오만방자한 성품에 질려 박대하고 무시하고 있다는 점, 그래서 소부인의 원한과 질투가 갈수록 커지는데도 오히려 소부인 모자(녀)를 더욱 차별하고 있다는 점, 또 실질적 장남인 소부인 소생 성옥을 탐탁스럽게 여기지 않던 중에 강부인 소생 중옥이 총명하고 늠름하게 성장하자 그로 계후를 이르려는 생각이 강하다는 점, 무엇보다 부친 여익이 이러한 자신의 속내를 감추지 않고 모두에게 드러내고 있다는 점은 친정 여부 안에서 처처 갈등과 부부 갈등, 계후 갈등 등 많은 문제가 일촉즉발의 상황에 놓여있음을 예고한다.

중요한 사실은 문제적 상황을 악화시킨 원인이 부친에게 있음을 여희주가 잘 알고 있다는 점이다. 소부인은 여금오의 강력한 통제와 박대에 불만을 느끼면서도, 현숙한 강씨의 배려와 여희주 남매의 공경에 분심(憤心)을 참고 있었다. 정연경은 희주의 진가(眞價)를 알게 되면서 사혼에 대한 불만을 해소하고 자신의 오해를 바로 잡았다.

그러나 여익은 여전히 소부인의 태도를 문제 삼으며 박대하거나 망신을 주었고, 여미주의 임신 사건이 드러났을 때에도 미주의 거짓말을 믿고 성급하게 판단하여 정연경을 질육했었다. 여희주가 주변의 문제적 상황을 수습하고 봉합하기 위해 노력할 때, 부친 여익은 그 틈새를 사정없이 벌려 갈등을 점화한다. 이에, 희주는 문제 수습의 책임을 느끼게 되고, 자신에 대한 주변의 신뢰와 지지에 의지하여 불편하고 문제적인 상황을 타개하고자 한다.

2) 문제 해결 전략 : 설득과 훈계

여희주와 정연경 부부는 서로의 인품을 신뢰하는 사이이다. 희주가 판단

하기에, 이름을 속이고 정연경의 세 번째 처로 들어온 이복 여동생 미주가 정부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남편 정연경의 인정과 애정이 필요했다. 따라서 희주는 미주에게 숙덕을 갖춘 부녀가 되기를 주문하고 혼계하는 한편, 남편을 상대할 때는 미주에 대해 갖고 있는 미움과 오해, 분노를 풀고 호감을 가질 수 있도록 애쓴다.

사실 여미주의 행실을 돌아켜보면, 여미주를 혼계하고 정연경에게 호소하여 설득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 것도 사실이다. 술취하여 방에 들어온 정연경에게 희주가 아님을 밝히지 않은 채 동침하였고, 임신한 몸으로 유모와 함께 도망하여 고지 없이 아이를 낳아 아버없는 자식으로 키웠으며, 이웃에 사는 진씨 부인의 도움을 받아 진씨의 소고 송씨라 속여 정연경의 세 번째 부인이 되었다는 점을 상기하면, 남편 정연경과 시부모가 여미주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오히려 당연해 보인다. 미주가 혼인 전후로 바람직하지 못한 처신을 하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진실을 감춘 일이 많기 때문에 남편 정연경은 미주를 증오하고 있으며, 시부모 역시 미주에 대해 크게 실망하여 애정이 많이 식었다.

따라서 여미주의 운명은 전적으로 정연경의 판단과 시부모의 처리에 달려있다. 이에 여희주는 미주가 지난 과오를 용서받고 정식 아내로 인정받아 정부에 안착할 수 있도록 남편의 동의와 시부모의 이해를 얻어내기 위해 노력한다. 미주가 정부에 안정적으로 정착해야만 자신의 가정은 물론 시댁과 친정 식구들도 평안해질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여미주를 미워하고 외면하는 남편의 마음을 돌려야 했다.

다행히 남편은 희주를 아끼고 사랑했으며, 시부모와 모친 강씨의 지지도 강력했다. 성급한 기질의 부친조차 희주에 대한 믿음은 굳건했다. 이러한 가족의 신뢰에 힘입어 희주는 다양한 방식으로 남편을 설득하고자 했

다. 때로는 냉랭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남편의 애를 태우기도 하고, 신병(身病)이나 모친 간호를 핑계 삼아 친정에 가서 오랫동안 돌아오지 않기도 했으며,¹⁶⁾ 미주가 수절을 했다면 수용해 줄 것을 간절히 호소하기도 했다.

여미주를 훈계하여 바람직한 부녀(婦女)로 성장시키고, 정연경을 설득함으로써 미주가 일으킨 일대 파란을 수습하는 것은 온전히 여회주의 몫이었다. 비록 상황은 곤란하고 불편했으나, 양가 가족의 무한한 신뢰와 애정에 힘입어 마침내 회주는 가정 내 심각한 문제를 해결해낸다.

3) 전략의 보완 : 소부인 흠단 감추기와 역지사지(易地思之)

문제해결자로서 충분히 지혜롭고 적절한 위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회주가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다. 악인의 모해나 거짓, 술수를 밝혀내고 악행에 대비할 계책을 세움과 동시에, 작위의 주체인 가족의 흠단을 감출 방법도 고안해야 했기 때문이다. 때때로 남편에게 거짓말을 해야 한다는 곤란함과 친정집 상황이 드러나는 데에서 오는 부끄러움과 복잡한 갈등과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어려움을 여회주 혼자 오롯이 감당해야 했던 것이다.

소부인과 이복남매의 악행을 감추려는 여회주의 노력은 눈물겹다. 부친에게는 사실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항변함으로써 소부인을 두둔하는가 하면, 소부인을 만나서는 소부인의 모자의 흠단을 은근슬쩍 드러

16) 이 과정에서 서모 한파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 그 중 한 부분을 인요하면 다음과 같다. 쇼계 한파를 보아 왈, “가군이 외국의 봉사하여 급히 발흥하미 브득이 도라가나 동옥의 일신이 누란 닳트니, 서모는 나의 계교를 명심호쇼셔.” 인호여 금은을 만히 깃쳐 계교를 힘케하니, 꽤 응낙왈, “부인이 도라가시면 간인이 식환이 녀일거시니 텡상공 발흥 후 즉시 도라오쇼셔. 츠스는 부인이 당부치 아니시나 첩이 었디 니즈리오.” 쇼계 여러가디 밀계를 그르치고 도라가니라. <권지49. 60~61쪽>

내어 비판함으로써 소씨 모자를 위축시키기도 했다. 자신을 해치려는 소부인 모자의 행계에 철저하게 대비하는 동시에, 그 일이 소문나지 않도록 사후처리는 물론, 주변 입단속까지 신경 썼다.¹⁷⁾

여희주는 여미주와 정연경의 부부갈등 및 여성옥과 여중옥의 계후갈등이 궁극적으로는 부친 여익의 차별대우와 몰인정함에서 비롯되었음을 인정하고, 미주와 성옥의 입장을 최대한 이해하려 애쓴다. 문제 해결 과정에서 드러나는 희주의 태도는 ‘역지사지(易地思之)’라는 말로 요약될 수 있다. 희주는 부친의 공평하지 못한 제가(齊家)로 인해 소부인과 여성옥-여미주 남매가 느꼈을 억울함과 불안함을 감지한다. 따라서 소부인의 온갖 억지와 여미주 남매의 무례함에 조금도 개의치 않고 정성을 다해 효우(孝友)를 실천하고자 애쓴다.

정연경을 흠모하여 스스로를 중매하려 했던 미주의 행실을 그릇된 것이라 여기면서도, 자신이 정연경과 혼인했을 때 미주가 느꼈을 좌절과 원망에 대해서도 모른 척 하지 않는다.¹⁸⁾ 이 뿐만이 아니라, 송씨라 속이고 정부에 시집온 미주가 자신의 정체가 발각되었을 느꼈을 두려움과 걱정은 물론, 오매불망 그리워하던 남편 정연경이 자신을 외면하고 냉대할 때 느꼈을 슬픔에도 공감해준다. 또 어린 중옥이 부친의 총애를 받으며 여부

17) 예를 들자면, 희주가 처음으로 현구고(見舅姑)하러 절강으로 내려올 때 이복 오라비 성옥이 사주한 무리가 재물 탈취와 희주 납치를 기도했던 사건이 있었는데, 상선의 부주의와 가월의 오지랖 때문에 정부 일원에게 소부인 모자의 악행이 알려지게 되었다. 이 때 여희주는 시비가 지어낸 말이라고 우기며 소부인 모자의 죄를 감추고자 했을 뿐 아니라, 입단속을 하지 못한 시비들을 엄하게 질책했다.

18) 희주와 미주는 결국 같은 남편을 섬기는 동렬이자 적국이 되지만, 언제나 희주의 위치가 우선하고 우월했다. 여부에서 여미주는 여익의 세 번째 부인 소씨의 딸이었고, 시댁 정부에서도 정연경의 세 번째 부인이다. 미주 앞에는 언제나 희주가 있었기에, 미주에게 희주는 자신이 바라는 것(정연경과의 혼인, 부친의 애정과 인정 등)을 빼앗아가는 존재였다. 희주는 이러한 미주의 마음을 충분히 헤아린다.

의 후계자로 지목된 상황에서 성욕이 느꼈을 민망함과 열등감을 미루어 짐작하며 그의 상처를 걱정한다.

여희주는 주변사람들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그들을 세심하게 배려하는 태도를 보인다. 소부인이 욕심과 의심으로 자신을 괴롭히고 이복오라비 성욕이 자신의 남동생을 모해한다 해도, 모친과 형제의 위치에 있는 그들의 덕에 누가 되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가족 환란을 수습하고자 한다. 이러한 여희주의 태도는 이복동생 미주가 정부에 수용되고 정착되는 데 크게 기여한다. 여희주는 자신에 대한 주변의 신뢰와 애정에 부응하고 그들의 지지를 활용하되, 진심을 다한 호소로 상대방을 설득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해 나갔다. 여희주가 시댁과 친정 식구들의 더욱 강력한 신뢰와 지지를 받게 되는 것, 그래서 두 집안에서 그의 가치와 위상이 확고부동해지는 것은 필연적인 결과라 할 것이다.

4. 석가월의 속임수와 의지(意志)의 관철

석가월은 정운희의 충신모사(忠臣謀士)의 역할을 하는 시비이다. 정운희의 네 시비 중에서도 단연 뛰어난 그는,¹⁹⁾ 불의불미(不義不美)한 사건을 해결하거나 저지하기 위해 주도적으로 활약한다. 하류 신분과 뛰어난 머리와 불같은 성격이라는 태생 조건은 석가월의 문제 해결 방식이 앞의 두 인물과는 전혀 다른 방향일 것임을 암시한다.

19) 난난 등 스인은 통의넬스오 하류 등 가인이라. 문칙 빈 〃 ㅎ고 성달이 총명하며 다식이 유여하니 소계 슈족긋치 스랑ㅎ여 향규의 디심이 되니, **기둥 가월은 품슈훈 빅산천 경기와 일월디명을 일편도이 타 나 지기 파인ㅎ여 가인죄스의 맞출 빅 아니 〃, 〃앗갓다 녀적되미여! 만일 남적되던들 엇디 스업이 업스리오. 위뉘통십이 스인 등 싸허나니 소계 더욱 스랑ㅎ여** 일시도 썸나디 아니터라. <권지, 9~10쪽.>

석가월은 ‘속임수’의 방식으로 타인의 사적/공적 문제에 관여한다. 필요와 상황에 따라 이름을 바꾸거나 남자로 변장하거나 가상의 인물을 자처하는 방식으로 주변 인물들에게 가해질 위험이나 갈등 요소를 제거하는 것이다.

석가월은 적극적으로 타인의 문제를 해결한다. 그러나 타인의 문제 해결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추구한 것은 출가하려는 의지를 관철하는 것, 즉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었다. 석가월은 정운희의 시비이기에 임규의 첩이 되어야 했다. 그러나 석가월은 혼인을 원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래 전부터 출가에 뜻을 두고 있었다. 임규의 첩이 되지 않고 출가하여 수련하며 살겠다는 의지를 관철하기 위해서는 주변 인물의 강력한 반대를 이기고 허락을 받아야 했는데, 이것이 석가월이 당면한 또 하나의 문제적 상황이었다.

타인의 문제와 자신의 문제를 함께 해결해나가야 했다는 점에서 석가월의 상황은 다급하고 절실하다. 이에 석가월이 선택한 방식은, 타인의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과정을 통해 공덕과 명성을 쌓고, 출가를 원하는 절실한 심정을 주변인들에게 지속적으로 호소하는 것이었다. 타인의 문제적 상황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여 깔끔하게 해결함으로써 자신의 의지를 관철하기 위한 여건을 스스로 구비하려는 것이다. 자신의 출가가 직접적으로 가능할 수 있도록 스승이 될 조옥연을 직접 찾아 나서는가 하면,²⁰⁾ 자신의 출가로 인해 임규의 운명이 어그러지지 않도록 가묘월을 임부로 데려오는 등, 출가를 위한 만반의 준비를 착실하게 해 나갔다.²¹⁾

20) 석가월은 조씨를 직접 찾아내서 자암진인의 지시와 지령을 전달하는 한편, 자신에게 주어진 새로운 운명에 혼란스러워하는 조씨를 적극적으로 설득한다.

21) 석가월은 임규와의 혼례를 피하기 위해 자기 대신 왕소량을 가마에 태우는가 하면, 연소저의 시비 소선을 시켜 자기 대신 임규와 대면하게 했다. 결국 현세에 비구니가 되어야 할 가묘량의 운명을 자신의 것과 바꾸는 방식으로 임규의 처궁(妻宮)도 채우

시비라는 신분과 총명한 두뇌, 급하고 직설적인 성격, 강인한 의지는 석가월이 다양하고 다채로운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충분 조건이 되었다. 석가월은 개연성 있는 속임수를 적극적으로 구사함으로써 타인의 문제적 상황을 타파했을 뿐 아니라, 간곡한 호소와 주도면밀한 일처리로 마침내 자신의 의지를 관철할 수 있었던 것이다.

1) 타인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 : 속임수

석가월은 타인을 속이는 방식으로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고 문제를 해결했다. 그가 자주 쓰는 방법은 변장(남장)이었는데, 허구적으로 만들어진 '다른' 사람을 연기함으로써 수행되는 전략이다. 그의 거짓말과 사칭은 상대의 취향과 소망을 저격한다. 상대방의 마음을 정확하게 읽음으로써 그가 호감을 갖고 신뢰할 수 있는 캐릭터로 접근하여 상대의 욕망을 자극하는 것이다.²²⁾

충직하면서 적극적인 성격, 분명한 선악관과 명석한 판단력, 다소 급하고 충돌적인 기질, 불의를 참지 못하는 성품 등 석가월은 문제해결자로서 탁월한 조건을 갖춘 인물이다. 그가 해결하는 문제의 스펙트럼도 앞의 두 인물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넓으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원하는 방법 역시 다채롭다.

처음에, 석가월은 자신의 주군인 정운회를 억혼의 위기로부터 지키기 위해 거짓말로 정운회의 모친 진씨와 진상문 등을 속인다. 임규와의 혼약

고 자신의 뜻도 관철시켰다.

22) 진상문에게는 미인을 얻어주겠다는 말로 호감을 얻었으며, 임규와 대립하는 한왕에게는 그의 열등감을 감싸주면서 임규에 대한 미움을 공감해주는 척 하면서 신뢰를 쌓았다.

을 지키고 불의한 진상문의 억혼을 피하기 위해서는 가출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판단한 석가월은, 정소저와 자기 포함 네 시비 모두 남장으로 정부를 떠날 것을 제안한다. 진부인의 의심을 차단하고 순편하게 집밖으로 나가기 위해 정부가 아닌 외부 장원으로 이동하여 혼인할 것을 주장하는데, 진부인에게는 파혼으로 인한 구설과 타인의 이목을 피하기 위함이라고 둘러댄다.²³⁾ 또 진상문이 유난히 싫어하던 차환 봉금이를 정소저 대신 가마에 들어갈 인물로 섭외한다.²⁴⁾

석가월이 정소저를 대신할 인물로 봉금이를 선택한 데에는, 둘의 체격이 비슷하므로 의심을 피할 수 있다는 이유도 있겠으나, 부당한 혼사를 주도하여 소저를 곤경에 빠뜨린 진문에게 복수하려는 의도가 커 보인다. 진상문이 오매불망 사모하던 정운희를 얻었다고 생각한 순간, 사실은 그

23) 일〃은 가월이 부인고 품혀여 왈, “부인이 남가를 물니치고 한원 명스 옥인을 마즈시니 우리 쇼저의 복이 높호미라. 비즈 등도 아름다온 쥬군을 어드미 만형이오나, 그옥이 싱각진던 남게 디척의 니시기 저의 빙칙를 두고 다른 신상을 마즈면 쇼문이 그장 아를답디 아니코, 남게 알던덕 옥이 밋출가 두리옵느니 친스를 디닌 후는 아라도 무방호옵고, 원간 디뵈 너모 갓가와 친영호미 네답디 아닐 썬 아나 일가디분의로 각별 네답디 아닌 친스니, 쇼저의 친영이라 일컫디 말고 디한님이 취쳐흔다 호여 먼니 가 마즈면 뉘 알니고. 쇼비 등이 쇼저를 뵈셔 당원의 가 있다가 한님이 마즈 가시면 쇼문이 업슬가 호느이다.” (중략) 월이 디왈, “부인이 굿터 번거히 가시리잇가. 범구를 출혀 보디시면 쇼비 등이 족히 장속을 꾸미리니 부인은 디부의 계시다가 친영 교비호시는 양이나 보시고 인호여 참연호시면 디홀가 호느이다.” 부인이 그장 올히 녀여 혼연이 허락호고 당원 노복의게 분부호여 당원을 쉐소호여 디령호고 황혼의 쇼저를 당원으로 보닐식, <권지5, 47~48쪽>

24) 기둥 물 깃는 초환 봉금이란 년이 나히 이십이나 호고 용피 추루호여 호 눈 멀고 옹고 밋쳐시며 겹고 프르나 신당이 쇼저와 방불호고 데디 경첩호고로 월이 봉금을 다려가더라. (中略) 가월이 비계를 운동호여 이날 앗츨의 디〃이 봉금을 다리고 김흔 방의 드러가, 머리의 틀글을 빗기고 얼골의 방턱을 호르케 바르고 눈섭을 그리고 흥분을 가호니, 겹고 머흔 낫치 디분을 바르미 석은 나모 등걸의 스회를 칠흔 듯 형용이 괴괴호릭, 디〃이 심니의 우으물 니기디 못흐나 심분 츠고 단장제구를 나와 흥군을 미며 취삼을 넘히고 칠보를 가호며 옥잠을 썬즈니 그 가쇼롭고 미온 거동을 혼즈 보기 앗가온디라. <권지5, 49~55쪽>

가 평소에 가장 싫어하던 봉금이와 동침한 것임을 깨닫게 하려는 계획인 것이다. 석가월은 위기 탈출과 복수, 두 단계로 문제 해결을 수행했는데, '봉금'의 존재를 효과적으로 활용한 지모(智謀)가 탁월하다.

다음으로, 석가월은 진상문이 가흥현 별순검으로 임명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연어사를 무고하고 화빙아에게 가해할 것을 염려하여 남장(男裝)을 하고 진상문을 쫓아간다. 가흥으로 가는 길에서 진상문을 만난 석가월은 자신을 광동 복천현 사람 석광휘라고 소개하며, 아침과 혼인을 주선하는 말로 그의 환심을 산다. 석광휘는 광동 녹음현에 사는 자신의 표매가 화소저보다 미색이 뛰어나다는 점을 강조하여, 진상문이 보통으로(소문 상) 죽은 화소저를 '기꺼이' 단념하게 한다. 그 뿐 아니라 아침으로 진어사를 기분 좋게 한 후에 연어사를 삭탈관직 수준에서 처리할 것을 건의하기도 한다. 진상문이 숙부 진효렴을 만나고 나서야 석광휘가 가월이 있음을 깨달았을 정도로 석가월의 연기는 천연덕스러웠다.²⁵⁾

석가월은 도사를 사칭(詐稱)하기도 했다. <임화정연>의 전반부를 대표하는 악인이 진상문이었다면, 후반부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악인은 한왕이다. 임규가 원수(元帥)로 임명되어 북지국으로 출정할 때, 한왕이 부원수로 함께 가게 되는데, 임규의 서기로 차출된 가월은 평소 한왕이 임원수를 시기하고 있었으므로 분명 임원수를 모해하려 들 것이라 판단한다. 가월은 한왕의 의도와 계획을 무너뜨리기 위해 일부러 한왕을 찾아간다. 자신을 월봉도사라 소개하면서 입의 꿀처럼 한왕을 돕는 한편, 자신의 여동생을 아내로 주겠다고 거짓 약속으로 더욱 호감을 산다.

25) 석가월은 상황과 맥락에 맞게 속임수를 쓰거나 거짓말을 함으로써 상대의 의심을 피할 수 있었다. 일례로, 길에서 만난 진상문에게는 고향 가는 길이라고 둘러대는데, 지리적 위치상 길목이라 전혀 의심을 사지 않았을 뿐 아니라, 짧게 만나고 헤어질 수 있었다. 둘은 어린 시절부터 자주 본 사이 이기에, 오랜 시간 마주하게 되면 속임수를 들킬 우려가 있었다.

그 후 한왕이 패전의 책임을 지고 참수될 뻔 한 상황에서 월봉이 임규에게 호소하여 목숨을 구해준 사건을 계기로 한왕은 월봉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게 된다. 임규와 작당하고 연출한 상화이었으나, 이미 월봉도사에 대한 신뢰가 깊었던 한왕은 어리석게도 일말의 의심조차 하지 않는다.

월봉도사를 절대적으로 신뢰하게 된 한왕은 자신의 솔직한 심정은 물론 임원수를 모의할 계획까지도 모두 월봉에게 털어놓거나 상의하게 된다. 이로써 한왕의 모해 계획이나 악심을 미리 알고 제어함으로써 임규를 위협으로부터 지킬 수 있었다. 심지어 월봉은 임원수에 대한 미움이 극에 달한 한왕을 달래는 척하며 임원수를 모함하는 표문을 올리라고 조언하기도 한다. 이때를 대비해 한왕의 필체를 연습해두었던 월봉은 표문의 내용을 임원수의 공적을 치하하는 내용으로 바꾸어 올리으로써 임규를 모해하려는 한왕의 문제적 상황을 깨끗하게 척결할 수 있었다.

석가월은 한왕의 인성과 욕망을 정확하게 파악함으로써 임규에 대한 위협을 사전에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었다. 물론 임규에게도 한왕의 모해를 막을 능력은 있었지만, 황족인 한왕을 직접 제압하기가 곤란했을 것이라는 점에서, 석가월의 변장과 사칭을 통한 속임수 전략은 위협 요소를 사전에 제거할 수 있는 절묘한 대안이 되었다.

2)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 : 적덕(積德)과 대안 마련

석가월이 타인의 문제 상황을 속임수로 해결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문제적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명분까지 마련했다는 점은 이미 앞에서 지적한 바 있다. 그는 자신의 문제 상황이 해결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자신의 의지를 밝히며 호소하는 한편, 행여 결핍이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안까지 완벽하게 준비했다. 석가월은 ‘여자’로서의 세속적 삶에 흥미가 없

었으며, 일찍부터 출가하여 수도하며 사는 삶을 동경해왔다. 타인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운신의 폭이 넓어지면서, 출가와 수도에 대한 그의 욕망과 의지 또한 더욱 강해지게 된 듯하다.

그러나 그는 정운희의 시비이면서 임규의 첩이 될 처지로, 그와 함께 정운희를 모시던 다른 세 명의 시비는 이미 임규의 첩이 되어 자식까지 낳은 상황이다. 처음에 출가의 뜻을 밝혔을 때는 임규는 물론 정운희조차 가당치 않다며 불허(不許)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이에 석가월은 출가할 뜻을 분명하게 밝히지 않거나 출가할 수 있는 조건을 구비해 놓지 않으면 출과하기가 쉽지 않을 것임을 깨닫는다. 양씨의 모해에 분노하여 편지를 남기고 임부를 떠나 절강에서 사천까지 정처없이 유람하던 중, 어렵게 자암진인을 만나 사제의 연을 맺고 선법(仙法)을 배우게 되면서, 출가에 대한 자신의 의지를 실천하기 시작한다.

한편 석가월은 자암진인을 통해 자신과 임규의 인연이 깊으며, 3처7회를 둘 임규의 처궁(妻宮)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다. 또 교주낭낭으로부터 조옥연을 찾아 천서 3권과 약 두 환을 전달하고 스승으로 섬기라는 지시를 받는다. 이것으로 석가월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분명해졌다. 석가월은 자암진인의 조카 가묘랑을 찾아가 임규의 첩이 될 자신의 운명과 비구니가 될 가씨의 운명을 바꾸기로 한다.²⁶⁾

가묘랑을 데리고 경사로 돌아온 가월은 임규의 허락을 얻을 때까지 가

26) 가난한 가처사의 딸로 사천 궁벽한 곳에 사는 가묘랑은 전생에 지은 죄가 많아 현생에서는 비구니가 되지 않으면 요절할 운명이었고, 남자와의 인연도 없는 인물이다. 이로써 석가월은 가묘랑의 운명을 가져와 출가하여 수도를 하고, 가묘랑은 석가월의 운명을 가져가 고관대작의 첩이 되어 부유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게 된 것이다. 운명을 대체하는 것이 양방 모두에게 이로운 일이 되는 것이다. 석가월이 가묘랑을 만나 몹시 만족하며 형제지의를 맺었다는 표현을 통해 가묘랑의 자절이나 태도, 품성이 탁월하다는 점이 강조되며, 훗날 임부 사람들의 칭송을 통해 임규의 첩이 되기에 충분한 자격을 갖춘 빼어난 여성임이 확인된다.

묘랑을 정부에 부탁한다. 이 때 정연경과 그간의 일들에 대해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찾던 조씨가 여부 소씨의 며느리임을 알게 된다. 이제 자신의 스승이 될 조씨를 찾을 길이 열렸으니, 그의 의지가 관철될 수 있는 여건 또한 강화된 셈이다.

경사에 돌아와 진부, 임부, 정부에 들러 안부를 전하면서 석가월은 출가에 대한 자신의 굳은 뜻을 주변 인물들에게 확고하게 인식시킨다. 그들 또한 자암진인과의 만남이나 조씨와의 인연 등을 신기해하며 가월의 이야기를 수궁하기 시작한다. 진효렴은 석가월의 외모와 태도가 예전과 달라졌다는 점을 감지하기도 하는데, 자암진인에게 선법을 배우고 교주낭낭에게 천서 등을 받으면서, 석가월은 이미 속인의 태를 벗기 시작한 것이다.²⁷⁾

석가월은 마침내 조씨를 만나 천서를 전함으로써 조씨가 도술을 수련할 수 있게 하고, 의술을 익힌 조씨가 태자의 병환을 고치게 함으로써 조씨에 대한 황제의 인정을 얻어낸다. 조씨가 황제에게 공인 받은 현열도사가 되었다는 점은, 석가월도 그를 좇아 출가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도사가 되고 싶다는 뜻을 밝히는 석가월에게 정현과 진부인은 그 동안 세운 공로를 언급하며 출가를 허락한다. 임처사가 기꺼이 허락하고, 정운희도 눈물로 허락하니, 임규 역시 석가월의 의지를 인정하며 출가를 허락한다. 타인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쌓은 공덕과 그 과정에서 굳건해진 의지가 결국 자신의 문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토대와 명분이 된 것이다.

석가월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유롭게 집을 떠날 수 있었고, 자신의 이름과 성별과 신분을 감추고 능숙하게 거짓말을 할 수 있었다. 상대는 악하면서도 어리석었기에 언제나 그에게 속았고 제압당했다. 집 밖에서의 활동이 길어질수록, 문제를 해결하는 공로가 쌓여갈수록, 집 떠나는 시간

27) 이러한 석가월의 변화는 그의 의지가 강력할 뿐 아니라 이미 쉽게 꺾을 수 없는 경지에 접어들었음을 주변인이 인지하는 계기가 된다.

이 길어지고 활동 반경이 넓어질수록, 석가월에게 시비나 첩으로서의 삶은 더욱 무료하고 무의미하게 느껴졌을 것이다. 게다가 정운희에 대한 충성심이 큰 가월로서는 주군과 같은 남편을 섬긴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었다.

이런 점에서 석가월이 출가를 원한다는 사실은 뜬금없지도 갑작스럽지도 않다. 남다른 경험 덕분에 자신이 원하는 삶의 방식을 발견할 수 있었으며, 남다른 성격 덕분에 그러한 삶에 대한 의지를 꺾지 않았던 것이다. 타인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소망을 발견했으나, 소망을 실현하기 쉽지 않은 현실을 자각하면서 오히려 문제 해결의 여건을 스스로 조성해 간다. 환대와 인정의 관계망 속에서 석가월은 자신의 의지를 관철하기 위해 끊임없이 호소한다. 타인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속에서 궁극적으로는 자신의 의지도 관철하는 것, 이것이 석가월이 문제해결자로서 보여주는 특징이라 할 수 있다.

5. <임화정연>의 윤리

1) 여성 문제해결자 형상의 의미

본고에서는 <임화정연>의 여성 문제해결자 3인에 주목하였다. 화빙아는 피를 써서 자신에게 닥친 억혼의 위기를 모면하며, 기모비계를 가진 숙녀로서 명성을 얻는다. 여희주는 남편과의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가족 안에서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으며, 설득과 훈계를 통해 갈등을 봉합하고 가정의 평화를 이룰 수 있었다. 석가월은 정운희의 시비이자 훗날 현열도사 조씨의 제자가 되는 인물인데, 신분적 특성상 윤신의 폭이 넓어 황가의 시름부터 민가의 분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문제들에 관여

할 수 있었으며, 기지를 발휘하여 상대를 속임으로써 문제를 해결한다.

이들이 문제 해결을 위해 사용한 방법이 다양했던 것은 그들이 해결해야 했던 문제의 성격이 서로 달랐기 때문이다. 화빙아의 경우 실절의 위기에서 벗어나야 했고, 오명이나 불명예를 피해야 했기에 교묘한 꾀를 썼다. 화빙아에게 닥친 위협은 ‘급작스러운’ 것이나 ‘일회적’이기도 했다. 물론 자신의 죽음을 위장했어야 할 정도로 급박한 상황도 있었고, 가족들을 몰래 대피시키거나 시녀를 자기인 양 속여 가마에 태워야 했을 정도로 궁지에 몰린 적도 있었다. 그러나 여희주의 경우처럼 오랜 갈등이 누적되었다거나 관련 인물들의 감정과 상황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화빙아에게 닥친 위협의 특징을 급박성과 일회성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여희주가 해결해야 할 문제는 틀어진 가족 관계 안에서 발생한 것이라는 점에서, 해결의 방향은 이미 정해져있었다. 여미주는 음녀의 태를 벗고 정연경의 삼처로 안착해야 하며, 소부인과 여성옥은 회과하여 여부에서 화목하게 살아가야 한다. 완강한 태도를 고집하는 남편을 설득하기 위해 때로는 달래고 때로는 으름장을 놓는 전략은 상대방에 대한 신뢰와 자신에 대한 상대방의 애정이 확고할 때 작동할 수 있고 성공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었다.²⁸⁾ 또 자신의 가족을 모해하려는 이복 가족을 두둔하면서 화해의 길로 유도하려는 전략은 가족을 대상으로 수행된다는 점에서 문제유발자들이 비웃음의 대상이 되거나 난처한 상황에 빠지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했다. 특히 소부인은 모친 향렬에 있는 인물이라는 점에서 도덕적인 대안 및 수습책까지 구비해야 했다.

28) <소문록>의 윤혜영도 여희주와 비슷한 전략으로 남편의 바른 齊家를 유도했다. 남편은 영웅군자이고 아내는 숙녀가인이나, 젊은 시절 부부 사이가 냉랭하거나 갈등을 겪은 적이 있다는 점이 공통점이다.

슬기로운 인물이라는 점에서 여희주와 화소저는 유사한 지점이 있다. 그러나 화소저가 부친이 부재한 사이에 갑자기 등장한 악인의 억혼 위협을 피하기 위해 기지로써 자기 자신(과 직계가족)에게 닥친 위험만 해결하면 되었던데 반해, 여희주는 이복 동생 미주와 계모 소씨로 인한 오랫동안의 소란과 불화를 목도해왔을 뿐 아니라, 그것이 자신의 시대와 가정에 갈등 요소가 될 '가능성'을 제거하고 '묵은' 문제를 해결해야 했다는 점에서 무게감이 다르다. 따라서 화빙아의 계교가 곧 닥쳐올 사건에 대한 즉각적인 대비책으로서 기지(機智) 혹은 찌의 성격이 강했다면, 여희주의 계교는 장차 일어날 수도 있는 일들을 미리 감지하고 대비하며 장기적인 조치를 도모하는 판단력 혹은 중재 능력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임부 입성과 안착에 이르기까지 화빙아는 자신의 찌의 후광을 톡톡히 입는다.

반면, 여희주는 이복동생 여미주와 남편 정연경이 일으키는 문제를 해결해야 했다. 그리고 갈등을 키우고 문제를 심각하게 만드는 사람은 친정의 소부인과 이복형제 여성옥이다. 애초에 문제를 발생시킨 사람은 미주이지만, 현재 삼척로 정부에 들어온 미주의 실체를 알고 그를 출거시켜야 한다고 고집을 부리는 사람은 남편이라는 점에서, 여희주의 문제 해결 전략은 가족을 대상으로 수행되어야 했다. 따라서 문제유발자들이 비웃음의 대상이 되거나 난처한 상황에 빠지게 해서는 안 된다. 특히 소부인은 모친 항렬에 있는 인물이라는 점에서, 희주의 문제 해결 전략은 도덕적인 대안 및 수습책까지 구비해야 했다.²⁹⁾

29) 희주가 제시하는 문제 해결 방향은 갈등유발자들은 물론 주변 가족들도 행복하고 평안해지는 방향이라는 점에서 지혜롭다. 가장 곤란하고 고통 받는 사람이 여희주 자신임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고통과 불안, 불편을 감심함으로써 모두의 평안을 도모했다. 그 결과 희주에 대한 남편의 감탄과 미주의 신뢰, 성옥의 존경은 갈수록 커졌으며, 문제가 해결되어 가면서 세 인물 모두 성장하는 것으로 그려진다. 주변 인물들의 신뢰가 수렴되면서 여희주의 입지와 위상도 공고해지며, 자신을 포함한 모두의 행복

화빙아와 여희주가 개인적이고 가정적인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한 반면, 석가월은 시비라는 신분적 차이 뿐 아니라, 해결하는 문제의 반경이 넓고 다채로운 속임수 방법을 동원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석가월이 자신의 얼굴과 이름과 정체성을 숨기고, 상황에 따라 남장·사칭·거짓말 등으로 상대방을 속일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해결할 문제들이 타인들 간의 일이면서 비윤리적인 방식으로 자행되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석가월에게 문제 해결이란 타인의 일에 관여하는 과정이기도 했다. 따라서 대부분 집 밖, 주로 도로 위에서 수행되었으며, 여러 사람의 여러 문제를 해결하다 보니 여기저기 이곳저곳으로 끊임없이 이동해야 했다. 관계가 멀수록 속이기 쉬웠고, 거리가 멀어질수록 잘 속일 수 있었으며, 많이 감출수록 더 잘 속일 수 있었다. 흥미로운 것은 자신을 속이고 타인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석가월이 속일 수 없는 자신의 진심과 만났다는 것이다.

원래부터 석가월은 구속되는 것을 싫어하고 하고 싶은 말은 반드시 해야 하는 성미였다. 타인의 간섭이나 통제를 유난히 싫어하고, 거리낌 없이 농담하기를 좋아했으며, 활달하고 자유롭게 돌아다니기를 즐겨했다. 그러한 석가월이 문제적 상황들을 타개하기 위해 소흥과 가흥, 경사를 설 새 없이 왕복하고, 때로는 변방 북지국으로, 사천으로, 무창으로, 다시 소주로 종횡무진 움직였던 시간은 스스로의 본능과 소망을 일깨우는 시간이 된 것으로 보인다.

만약 석가월이 화빙아나 여희주 경우에 봉착했다면, 제대로 문제를 풀어나가지 못했을 것이다. 여희주처럼 문제유발자의 명예를 지켜주면서 설득과 훈계, 감싸기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석가월의 성격상 감당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또 화빙아의 경우를 석가월이 관여했다면, 이창백 부자

과 평안을 얻어 냈다는 점에서 그의 전략은 '원원'이라 할 수 있다.

가 받는 별은 훨씬 무거워졌을 것이다.

각각의 여성 문제해결자형 인물들이 위기나 갈등, 악행을 바라보는 관점과 태도는 완전히 다르지만, 여성의 고난에 대한 공감과 연대의 차원에서는 공유점이 보인다. 이것은 문제해결자로서의 인물 형상이 작품이 지향하는 윤리적 자장 안에서 설정되고 운영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2) <임화정연>의 포용력과 자매애

국문 장편소설에서 문제 해결사형 여성 인물은 의외로 적다.³⁰⁾ 여성 인물은 고난을 당하는 자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며, 그 고통에 대한 해결자로 등장하는 인물은 대부분 남성이다. 따라서 여성 인물이 문제해결자로 전면에 나섰다다는 것은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여성 인물이 본격적으로 형상화될 것이라는 선언이자, 문제를 선불리 봉합하는 대신 해결해 나가는 과정 자체에 주목하는 섬세하고 곡진한 서사가 마련되었다는 암시로 해석 가능하다.

이제, <임화정연>에서 문제해결사로 활약하는 여성 인물을 토대로 작품의 세계관을 점검해보자. 임규는 <임화정연>의 구심점 역할을 하는 인물임에도 외모가 몹시 추했던 탓에 장모의 반대로 혼사가 어그러질 뻔 했으며, 어린 시절 내내 두문불출하며 혼자 지냈다고 언급된다. 반면, 진상문은 사촌동생과 고모부를 죽이려 했던 천하의 악인이었고, 여미주는 이

30) 문제해결자의 특징을 일부라도 갖고 있는 고전 장편소설 속 여성 인물의 사례와 특징을 지적하면 다음과 같다. ① <소현성록>의 석파 : 문제해결자 이면서 문제유발자이기도 하다. ② <현씨양옹쌍린기>의 주소저와 윤소저 : 서사의 주역이자 긍정적인 인물로 표상되지만 문제당사자이면서 문제유발자이다. ③ <사씨남정기>의 두부인 : 조연자이긴 하나, 온전한 문제 해결자의 위치나 역량은 없다. ④ <옥루몽>의 강남홍, <하진양문록>의 하옥주 : 남성 인물을 도와주거나 특정 문제를 해결한다는 점에서 석가월과 비슷하다고도 할 수 있으나, 석가월 만큼 활동 영역이 다양하거나 넓지 않다.

복형부를 속이고 동침하여 임신하고 출산한 최고의 음녀였지만, 그들 곁에는 끊임없이 훈계하면서도 애정을 버리지 않는 삼촌 진효렴과 언니 여희주가 있었다. 영웅에게도 상처가 있을 수 있으며, 악인이나 음녀(淫女)에게도 친구가 필요함을 환기하는 것이다.

<임화정연>은 신뢰와 애정을 통한 개선과 성장을 추구하며, 반성과 포용의 가치를 강조한다. <유효공선행록>에서 유홍이 마침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용서를 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진심을 의심하던 가족·친족의 태도나 그로 인해 결국 율화병으로 죽게 되는 유홍의 초상(肖像)을 떠올려보면, <임화정연>이 가진 포용력의 크기를 확인할 수 있다. <임화정연>에서는 진상문과 여희주 모두 개과천선하여 다른 인물들과 어울려 살아간다.

이러한 작품의 특징이 드러나는 부분이 바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고군분투하는 여성 인물들의 존재이자 형상이다. 이들은 당면한 위기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자신의 특장을 충분히 발휘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할 뿐 아니라, 갈등을 일으킨 인물을 징치하거나 배제하는 대신, 용서와 포용의 태도로 화해를 도모한다는 것이다.

<임화정연>은 어른의 훈계나 영웅의 주도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거의 선택하지 않는다. 강력한 권위를 가진 남성 인물이 문제를 ‘수습’하거나 해결을 명령하는 방식은 쉽고 간단한 만큼 폭력적이다. 그러한 문제 수습의 방식 안에서 각 인물들의 사정이나 심리, 누적된 상처나 원한 등은 은폐되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문제해결자 여성들이 서사를 주도적으로 견인할 수 있었던 것도, <임화정연>이 서둘러 갈등을 봉합하거나 단번에 시비를 결판 짓는 방식과 거리를 둔 덕분이다.

세 여성 인물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면모는 억울한 사람을 신원하고 가족의 흠단은 감추려 하며 회과한 상대에게

는 회복의 기회를 주고자 한다는 점이다. 이것은 '문제해결자'형 여성 인물 형상이 <임화정연>이 세계관 안에서 산출되었음을 의미한다. 여성이 문제해결자를 자처하거나 문제해결자로의 투입과 협력을 기꺼이 수용하거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결국 그들 사이의 연대 의식 덕분이다. 지지와 연대, 모색과 협력, 포용과 용서는 여성 인물들이 문제를 해결해가는 과정에서 결정적으로 개입되거나 강화된 가치들이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성들의 주도적인 활약과 그 과정에서 확산되는 공감과 이해는 그들 사이에 연대감을 강화한다.³¹⁾ 이렇게 만들어진 연대 의식은 일종의 동지애적 성격을 가진다. <임화정연>의 여성들은 자신과 같은 신분이 아니어도 연민하고 지지하고 동정하고 협력한다. 같은 고난을 겪거나, 고난을 겪는 여성을 돕거나,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과정에서 형성되고 강화된다는 점에서 '동지적(同志的)' 자매애라 부를 수 있을 것이다.³²⁾

<임화정연>의 동지적 자매애는 <유씨삼대록>의 여성 의식과도 결을 달리 한다. 사실, <유씨삼대록>은 여성들의 삶을 보여주고 여성의식이

31) <운영전>·<숙녀지기>·<방한립전>·<장화홍련전> 등에 나타난 여성 인물들의 우애나 우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자매애가 다양한 층위로 언급된 바 있다. (김지연, 『숙녀지기의 여성 인물 표지와 서사 전략 연구』, 『어문논집』 71집, 민족어문학회, 2014, 12쪽.; 노지승, 『모성과 자매애 : 장화홍련전의 20세기 개작 텍스트들과 친밀성의 문제』, 한국고전연구 39권, 한국고전연구학회, 2018, 129~130쪽.)

32) <임화정연>과 마찬가지로 처첩 사이의 화목이 그려지는 <구운몽>에서도 자매애라 부를 수 있는 여성 사이의 공유된 정서를 찾을 수 있으나, <임화정연>이 여성을 동지(同志)로 그리는 반면 <구운몽>에서는 여성들이 자기(知己)에 가깝게 그려진다. <구운몽>의 2妻 6妾 사이에서는 상호 간의 '인정'이 중요하다. 인정할 수 있는 외모나 능력, 부덕(婦德)이나 양소유의 입신양명(立身揚名)에 기여한 정도 등이 자매애를 공유할 '자격'이 된다. 따라서 지기적(知己的) 자매애는 공유된 경험, 즉 연대 의식이 없어도 가질 수 있다. 또한 자질과 신분에서의 차등을 인정한다는 점에서 이들 사이의 화목한 관계는 차이와 배제에 기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고소설 속 '자매애'에 대해서는 후고를 기약한다.

드러나는 작품으로 지목되기도 하지만,³³⁾ 사실 이 작품 속 여성 인물들 사이에서 자매애를 찾기는 어렵다. 이는 진양공주라는 강력한 인물/여성이 등장한다는 정보나 4대에 걸쳐 입양과 계후 문제가 내내 이슈가 되는 가문 서사라는 사실에서부터 예상되는 면모이기도 하다.³⁴⁾ 반면 <임화정연>에서는 여성들 간의 연대의식이 선명하게 포착된다. 이 연대의식은

33) 박일용, 『<유씨삼대록>의 작가의식 연구』, 『고전문학연구』 12, 한국고전문학회, 1997, 187~220쪽.; 한길연, 『여성교육과 부부갈등의 관련양상 연구 - <유씨삼대록>을 중심으로』, 『인문논총』 66,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11, 321~355쪽.; 강우규, 『삼대록계 국문장편소설에 나타난 공주혼의 유형적·시대적 특성과 의미』,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32,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327~352쪽.

34) 북원(北元)출신 양성공주나 흥측하고 교양없는 순씨에 대한 비교적 호의적 수용 태도를 근거로 유부 사람들의 포용성을 지적한 논의도 있기는 하나, 유부 사람들의 지나칠 정도의 우애나 효성에서는 일종의 '신경증'적인 양상마저 보인다. 시집간 세 딸은 모두 다 저마다의 사정을 핑계로(시계조모의 횡포, 호방한 남편과의 불화 등) 친정에 와서 지내며, 형제들은 다른 형제의 죽음 앞에서 벼슬을 그만두고 동고동락, 동침한다. 죽기 직전 유세형은 자기 주변을 스스로 정리하며 상식 이상의 평상함을 연기하고, 유우성은 죽기 전에 부친의 산소를 방문하여 자식들과 함께 눈물을 쏟으며 부모의 고생을 회고한다. 남은 형제들도 모두 벼슬을 그만두고 한 집에 모여 일분일초를 함께 보낸다. 이것은 선조 대에 있었던 부자(父子)-형제(兄弟) 간의 극심한 갈등과 그로 인한 유연에서 유백경(유홍의 차자 입양), 유세기(유우성의 장자 입양)로 이어지는 입양과 계후 강박의 결과로 보인다. <유씨삼대록>에는 많은 부부 상이 등장하고, 그만큼 많은 여성 인물이 등장하며, 그들의 형상이나 조건에 겹치는 지점이 없을 만큼 다채롭지만, 결국 유부가 포용하는 것은 유씨 성을 가진 직계 가족과 진양공주 뿐이다. 이국(異國) 출신인 양성공주가 비록 후사는 없었으나 배제되지 않고 지냈으며, 추모(醜貌) 경박자(輕薄子)인 순씨조차 5자 1녀를 낳은데다 심지어 딸이 황태자비가 되었다는 점에서 극진한 영화를 누리는 것 같지만, 따지고 보면 약조건을 가진 순씨가 그렇게라도 유부에 소속될 수 있었던 것은 죽은 친구의 부탁을 철저히 지키는 유우성의 눈물겨운 의리 덕분이기도 하다. 반면, 장설혜는 진양공주의 며느리이면서, 시아버지 유세형의 첫사랑 겸 둘째 부인이었던 장혜영의 조카였지만, 투기와 분노를 참지 못하고 시아버지에게 무고죄를 덮어씌우는 바람에 남편 유현에 의해 단칼에 목이 베였다. 이 과정에서 유부 여성들은 무서울 정도로 침묵한다. 아내를 죽인 유현의 행위를 꾸짖는 목소리도 그가 내세우는 당위 앞에서 순식간에 사라진다. 이로써 보건대, <유씨삼대록>의 여성 인물들에게서 연대감이나 자매애를 찾기는 쉽지 않다. 이와 관련한 보다 상세한 논의는 후고를 기약한다.

문제해결자로서 활약하는 화빙아와 여희주, 석가월 등만이 아니라, 임부에서 유일하게 불화와 문제를 일으키는 여성인물인 양씨와 주변 여성들 사이에서도 발견된다.³⁵⁾

용서와 화해를 가능하게 하는 포용력 및 공감과 연대를 기반으로 하는 자매애는 <임화정연>의 저변을 흐르는 공유된 정서이자 작품이 지향하는 윤리이다.

6. 나가며

<임화정연>의 인물들은 끊임없는 '이야기하기'와 지난한 설득의 시간을 통해 이해와 소통을 확장하는 과정을 보여주며, 그 과정에서 억울한 사람이나 원한을 쌓는 사람이 없도록 충분히 배려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35) 임규의 3처 7회는 (양씨를 빼고) 화합한다. 양씨는 이부시랑 양유의 딸이었고 진상문과 정혼했던 사이였지만, 진상문이 정운희와 몰래 혼례를 올리려 했다는 사실을 알고 파혼했으며, 호유용이 몰락할 때 부친을 잃었다. 유모와 함께 산속으로 도피하여 살던 중 다른 이유로 피화(避禍)한 임규와 만나 다른 처첩에 앞서 가장 먼저 혼례를 올렸으나, 임규는 이미 정운희와 정혼했음을 이유로 양씨를 첩으로 맞아들었다. 양씨는 이에 불만을 품긴 했으나 정성을 다해 구고를 봉양했다. 이러한 양씨에 대해 주변 여성들은 그의 심정을 이해하고 상황에 연민을 느끼기도 한다. 임규에게 제가(齊家)를 잘할 것을 당부하거나 양씨에게 복수하려는 석가월을 만류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시부모는 어려운 시절을 함께 한 양씨에게 남다른 애정을 보이며, 양씨가 시부모와 남편을 정성을 다해 봉양했음도 잊지 않는다. 양씨의 원래 신분이 사대부였다는 점에서 현재의 영락한 처지를 안타깝게 느끼기도 한다. 심지어 임부의 첫 자식을 낳은 이도 양씨이다. 그러나 임규는 양씨의 그러한 공로를 인정하면서도 양씨의 과덕(寡德)을 끊임없이 문제삼는다. 주변 다른 처첩들은 양씨에게 감사와 연민의 감정을 동시에 느낀다. 임부의 여성들은 양씨를 이해하고 포용하고자 하며, 양씨도 그것을 알기에 그들을 직접 모해할 마음은 먹지 않는다. 다만, 열렬한 성품의 석가월만은 양씨가 가진 불만과 억울함을 이해하지 못하고 다그치고 자극했다는 점에서, 양씨의 미움은 석가월에게로 집중된 것으로 보인다.

화빙아를 납치하여 억지로 혼인하려 했던 이창백은 그 죄에 따라 곤장을 맞지만, 흥연을 정식 아내로 맞아 회과할 수 있었으며, 화빙아의 용서와 배려는 간악했던 이지현조차 감동시킨다. 여희주의 끊임없는 호소에 설득당한 정연정은 미주를 거두기로 마음먹게 되며, 그동안의 희주의 고생에 감동한 소부인과 미주 모녀 역시 결국 희주에 대한 미움을 거두고 회방을 멈춘다. 석가월은 다른 두 인물과 비교할 때 다소 단선적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나, 문제 해결에 ‘투입’되기 전에 정운희나 임규와 충분히 상의하면서 문제 상황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는 시간이 있다는 점, 상대의 특성이나 행동 양상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기에 악행이나 모의를 사전에 발각하거나 차단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여성 문제해결자로서의 특징을 공유한다. 그 역시 자신의 출가(出家)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심정과 결심을 지속적으로 호소하고 간절함을 보여줌으로써 상대방(정현, 정운희, 임규)의 동의를 얻어낼 수 있었다.

본고는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에 임하는 <임화정연> 속 세 여성 인물에 주목하여, 남성과는 다른 갈등 해결의 방식을 분석해 보았다. 여성이 주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서사는 작품 전체에서 감지되는 연대와 배려, 공감의 윤리와 맥락을 같이 한다. 여성 인물 사이에 포착되는 자매애 및 고소설의 여성의식에 대해서는 후고를 기약한다.

참고문헌

- <임화정연> 72권 72책 강춘재 소장 필사본. (중한번역문학연구소 편, 『님화명연희 봉』 1-5권, 학교방, 2008.)
- <유효공선행록> 12권 12책 서울대 소장 필사본. (김기동 편, 『필사본고전소설전집』 15-16권, 아세아문화사, 1980.)
- <유씨삼대록> 20권 20책 국립중앙도서관본.
- <명주기봉> 24권 24책 장서각본.
- 강우규, 『삼대록계 국문장편소설에 나타난 공주혼의 유형적·시대적 특성과 의미』,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32,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327~352쪽.
- 김동욱, 『<임화정연>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016, 1~179쪽.
- 김지연, 『<임화정연>의 서사 전략 연구』,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2010, 1~201쪽.
- 김지연, 『<숙녀지기>의 여성 인물 표지와 서사 전략 연구』, 『어문논집』 71, 민족어문학회, 2014, 5~35쪽.
- 노지승, 『모성과 자매애 : <장화홍련전>의 20세기 개작 텍스트들과 친밀성의 문제』, 『한국고전연구』 39, 한국고전연구학회, 2018, 125~170쪽.
- 박일용, 『<유씨삼대록>의 작가의식 연구』, 『고전문학연구』 12, 한국고전문학학회, 1997, 187~220쪽.
- 이지하, 『18세기 대하소설의 멜로드라마적 성격과 소설사적 의미』, 『국제어문』 66, 국제어문학회, 2015, 195~222쪽.
- 장시광, 『<쌍천기봉> 여성수난담의 특징과 그 의미』,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21,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2010, 187~232쪽.
- 장시광, 『대하소설 여성수난담의 성격 : <완월회맹연>을 중심으로』, 『동양고전연구』 47, 동양고전학회, 2012, 7~50쪽.
- 최수현, 『<명주기봉>에 나타난 자매갈등의 형상과 그 의미』, 『어문연구』 42(1),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14, 216~227쪽.
- 한길연, 『여성교육과 부부갈등의 관련양상 연구 - <유씨삼대록>을 중심으로』, 『인문논총』 66,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11, 321~355쪽.

ABSTRACT

Study on Female Troubleshooters of
the *LimWhaJungYeon* and its Ethics
— Focusing on Hwabinga, Yeohuijoo, Seokgawol —

Kim, Ji-yeon

This thesis is designed to explain the meaning of the Female Troubleshooters of *LimWhaJungYeon*. They are Hwabinga, Yeohuijoo, Seokgawol. In the case of male troubleshooters, they must be perfect and overwhelming, so they solve the problem unilaterally. But female's are different.

Hwabinga solves her problems by herself to use her wits to cheat them who tried to marry her unreasonably. Her wits covered private and public sphere, which can forgive foolish rogues. This made Ms. Hwa famous for her great wisdom, and Yeonkwon, who took over as a secret royal inspector, was able to listen and gather data about her performance. It gave her a stable status in the Lim's family.

Yeohuijoo persuades her husband to accept Yeomijoo as his official wife with forgetting hatred and anger, as admonishing Mijoo of the ladies' virtues. Her other issue is about the step family, who are stepbrother Yeoseongok and his mother Ms. So. Yeohuijoo is so courteous and magnanimous to hide their misdeeds and bad choices. While trying to solve these two problems, she obtains support and big trust from families, and at last, she becomes the most valuable person both at the Yeo and the Jung.

Seokgawol uses tricks actively to solve the problems. It has 2 tracks of Seok's performances. One is for people and the other is for herself. She tries to fulfill her wish of being a female ascetic for collecting good deed and appealing her will to others.

LimWhaJungYeon puts emphasis on the solidarity and sympathy

between women, and this can make female troubleshooters' remarkable activities. The sense of bond between women is the ethics of *LimWhaJungYeon*.

Key Words *LimWhaJungYeon*, Female Troubleshooter, Cleverness, Entreaty, Trick, Female solidarity, Sisterhood, Literary ethics

논문투고일 : 2019.01.23
심사완료일 : 2019.02.12
게재확정일 : 2019.02.19